9일 '글을 낳는 집' 마당에 입주작가들이 모였다. 왼쪽부터 백정희, 유인례·루이스 빈치게라 부부, 김희수, 김규성·김선숙 부부, 범대순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담양 문학 창작스튜디오 '글을 낳는 집'

자연과 교감하며 창작… 작가만을 위한 공간

시인 김규성씨 사재 털어 조성… 한국문예위 지원 운영

순수창작집필실 국내 유일, 김은성·범대순씨 등 7명 입주

작년 입주작가 60여편 작품 발표… 지역·중앙 간 교류도

사방 500미터 이내 세속의 요란한 소리 없이 자연과 합일하는 정중동(靜中動)의 공간. 이런 곳에서라면 작가는 연신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거미처럼 영롱한 글을 맘껏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555번지 세설원(洗舌圓·대표 김규성). '글을 낳는 집'으로 불리는 이곳은 지난해 문학 창작스튜디오로 문을 열어, 지금은 전국 문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물론 이곳 외에도 만해마을문인창작집필실(강원 인제), 토지문학관문화예술인창작실(강원 원주), 부악문원창작레지던시(경기 이천), 연희문학창작촌(서울) 등 5곳에서 창작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방식이 다르며 전적으로 창작집필실로만 이용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이곳은 시인인 김규성(61)씨가 사재를 털어 조성한 5620㎡(약 1700평) 공간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입주작가들에게 제공되는 17㎡(약 5평) 남짓한 집필실을 비롯해 숙소, 세미나실, 식당, 도서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집 뒷편 소나무 숲과 텃밭 등도 마련돼 있다.

이런 입지조건 때문인지 지난해에만도 60여명의 작가가 다녀갔다. 소설가 송은일·이기호씨 등이 수 개월간 머물며 창작활동을 펼쳤고 이건청·송기원·김병윤·이지담·황학주·이은봉 시인 등도 머물렀다. 이외에도 이태관·홍일표·박찬세·심지아·최준·전윤호·이승철(시), 오을식·이원화·윤정옥(소설), 김남중·김희철(아동문학), 최은경(희곡)씨 등도 입주했었다.

작품을 쓰는 창작스튜디오인만큼 결실도 많았다. 지난해와 올해 이곳에 머문 작가들이 문예지에만 6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고, 출간했거나 출간을 앞둔 시집과 소설집도 10여 권에 이를 정도로 창작공간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새 식구를 맞이했다. 올해 두 번째 입주자인 셈이다. 현재 3월부터 머무르고 있는 김은성씨를 포함해 범대순, 이명한, 김희수, 루이스 빈치게라·유인례 부부, 백정희씨 등 7명이 입주해 있다.

벼르고 별러 이곳에 들어왔다는 김희수(62) 시인은 "자연과 교감하며 창작열을 불붙이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해 입주했다"며 "벌써부터 좋은 작품을 쓸 것 같은 예감에 설렌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곳이 창작공간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6명 내외의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데다 조용한 집필실, 산책로, 텃밭 등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약선요리 전문가인 김 대표의 부인 김선숙씨가 제공하는 제철음식과 건강식은 입주작가들이 건강하고 편하게 창작에만 집중하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평이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공정한 입주 작가 선정을 위해 유안진·정진규·문정영씨 등 서울지역 작가와 고재종·채희윤·김형중씨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구성된 6명의 선정위원을 구성한 점도 잡음 없이 창작집필실을 운영하는 기반이 됐다.

김 대표는 "어떻게 하면 입주작가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 곳이 지역과 중앙 작가들간 교류 활성화와 창작열을 높이는 건강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글을 낳는 집'은 신춘문예나 우수 문예지로 등단한 작가, 최근 3년간 우수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한 작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전업작가 등에게는 무료 입주의 기회를 제공한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daeduk.sm.to/내집처럼) '이용자격' 참조. 문의 061-381-1551. /담양=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인문학강좌Ⅱ'

16일 조용헌씨 '무등산 춘설헌' 강의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이 연중 공동 주최하는 '인문학강좌Ⅱ' 네 번째 강의가 오는 16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동양학자 조용헌〈사진〉씨가 강사로 나와 '호남 제일의 살롱-무등산 춘설헌'을 주제로 강의한다.

풍수지리와 동양학 등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춘설헌터의 유래와 의재 허백련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향의 살롱 역할을 했던 춘설헌은 풍수학적으로 양쪽 물이 합해지는 지점에 해당하고, 산의 화기와 물의 수기가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다.

또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았다는 뜻이 담긴 석아정(石啞亭), 명예욕 등 다섯 가지의 욕심을 의미하는 오방정(五放亭) 이야기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이 밖에도 의재가 손님을 맞기 위해 따로 방 2개를 늘렸던 일화와 다석 유영모, 함석헌 등 춘설헌의 단골 손님들도 소개한다.

조선일보 인기 칼럼 '조용헌 살롱'을 연재하고 있는 그는 원광대 동양학과에서 강의했고,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방외지사' '조용헌의 사찰기행' 등의 책을 냈다.

문의 062-613-539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지에 스며든 꿈, LED로 밝혀

정선휘 개인전, 14~20일 광주신세계갤러리

LED조명을 이용해 한지에 스며든 은은한 불빛과 그림의 조화를 선보이고 있는 정선휘씨가 오는 14~20일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여행'을 주제로 바람에 따라 흘러 다니는 '박주가리'라는 식물을 형상화한 신작을 선보인다.

박주가리 씨앗이 바람을 타고 여행을 하듯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담은 작품들이다. 정씨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8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제3회 신세계미술상, 송은미술대상전, 하정웅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행'

광주국제교류센터 '국제이해' 강좌

14일 김선홍씨 초청

우리나라의 다문화, 다민족사회 가능성과 이를 대비하는 시민들의 역할을 논하는 강좌가 열린다.

광주국제교류센터(소장 신경구 전남대 영문과 교수)는 14일 광주국제교류센터(전일빌딩 5층)에서 김선홍(광주시 국제자문대사·사진)씨를 초청 '국제화시대의 축복과 덫 그리고 우리의 길'이라는 주제로 국제이해 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에서 김씨는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는 시대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자세와 실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씨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 후 김대중 전대통령 국제의전비서관과 상하이 총영사 부총영사, 주(駐) 중국 칭다오 총영사를 지냈다. 문의 062-226-273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0년간 경매 거래액 최고 작가 이우환

지난 10년간 국내 경매에서 작품 거래액이 가장 많았던 작가는 이우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환기, 천경자의 작품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12일 발표한 '국내 경매결과로 본 낙찰총액 100위 작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이우환 작품의 총 낙찰액은 467억750만215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이우환의 작품은 경매에 총 469번 출품돼 출품수에서도 2위에 올랐으며 낙찰률은 71%로 집계됐다.

이우환은 앞서 미술시장 분석 전문 사이트인 '아트프라이스' 조사결과에서도 전세계 경매에서 작품 거래액이 가장 많았던 한국 작가로 조사됐다.

이우환에 이어 작품 총낙찰액이 많았던 작가는 박수근(466억5122만원), 김환기(422억534만9400원), 이대원(160억8844만6350원), 천경자(146억463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매에 가장 많이 출품된 작가는 김기창으로, 총 608점이 출품돼 이 중 341점이 낙찰됐다. /연합뉴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CINUS 콜롬버스시네마상무점
6월 22일 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 30% 확 넓어진 앞뒤 좌석간격
• 프리미엄 인테리어, 아름다운 홀
• 120년 전통의 이탈리아 고급 커피 LAVAZZA 런칭
• 더 밝고 넓어진 주차공간
• 풍성한 재오픈 이벤트(관련증정, 무료상영회, 경품응사)
WWW.CINUS.CO.KR ARS 1544-0070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항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1관 모든것이 바뀌었습니다!
2관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극장 프리미엄 인테리어, 아름다운 홀 이제 다리뻗고 영화보자
3관 30% 확 넓어진 앞뒤 좌석간격
4관 TAKE OUT ITALY
5관 120년 전통의 이탈리아 고급커피 LAVAZZA 런칭 더 밝고 넓어진 주차공간
6관
7관
8관 내부 리뉴얼 공사로 인해
9관 6월 21일까지 임시휴관합니다.
10관
하남점
1관 쿵푸팬더2 (전체)
2관 모비딕 (15세)
3관 써니 (15세)
4관 써니 (15세)
5관 캐리비안의해적-낯선조류 (12세) 모비딕 (15세)
6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7관 스크림4G(12세)/레지던트 (18세)
8관 프리스트 (15세)/마마 (12세)
9관 마마(12세)/화이트-저주의멜로디(15세)
10관 쿵푸팬더2 (전체)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최고급관
2관 모비딕 (15세)
3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4관 스크림4G (12세) 캐리비안의해적-낯선조류 (12세)
5관 프리스트 (15세)
6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7관 써니 (15세)
8관 모비딕 (15세)/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9관 스크림4G (12세)/쿵푸팬더2 (전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황금주차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쿵푸팬더2 (전체)
2관 마마 (12세) 레지던트 (18세) 캐리비안의해적-낯선조류 (12세)
3관 모비딕 (15세)
4관 프리스트 (15세)
5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6관 써니 (15세)
7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